

“제주 외판집서 만든 음악... 초록 내음이 나죠”

새 앨범 '수니 리워크-1' 발매... 싱어송라이터 장필순

“나의 외로움이 널...” 등 13곡 재작업 거쳐 수록 개 짓고 새 노래하는 섬 자연스러운 사운드 담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그 뭔가가 있더라”

1997년 발매된 싱어송라이터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는 한국 포크의 대표적 명곡으로 꼽힌다. 장필순의 서걱거리는 음색과 따뜻한 멜로디로 슬한 이의 마음을 어루만진 이 곡을 20여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만난다면 어떨까. 장필순이 지난달 31일 선보인 새 앨범 '수니 리워크-1'(soony re:work-1)에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를 비롯한 그의 명곡 13곡이 재작업을 거쳐 담겼다. 16년째 제주 자연을 벗하며 지내온 장필순의 삶 속에서 새로운 내음을 입은 음악들이다.

그가 사는 제주 소길리는 개가 짓고 새가 우는 시간대를 피해 녹음해야 하고, 마당에서는 부엉이를 만날 수 있는 곳. 제주에서 유튜브 라이브 인터뷰로 만난 그는 “1997년의 음악 속엔 그 시대의 느낌이 담겨 있었다면, 지금의 제주 소길리 외판집에서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것을 들려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예전에 제 음악을 들으면 다들 도회적이라고 했어요. 그런 색채의 음악이 한편에 있었다면 제주로 이주해 오고 이 섬에서 만들어진 음악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음악의 품질은 떨어뜨리지 않되 ‘초록 내음’이 나는 음악들이죠.”

세 가지 버전이 담긴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에서도 사운드를 비우며 더욱

더 깊어진 정서가 느껴진다. 기타 버전은 단출한 기타 연주로 바로 옆에서 장필순이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피아노 버전은 음악적 동료 박용준의 “오롯이 움직이는 손가락”으로 연주되는 곡에 노래를 얹었다고 장필순은 말했다.

그는 “예전에 노래하고 녹음할 때는 오히려 엄청 예민했다. 잘하고 싶었다”며 “그런데 점점 철이 들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게 보였다”고 했다.

이번 앨범 첫 트랙이자 타이틀곡은 1989년 발표된 ‘어느새’다. 장필순이 27살 때 부른 데뷔곡이 31년이 지나 재작업 앨범의 타이틀곡이 된 것.

장필순은 “가장 많이 사랑받은 곡중 하나인데 사실 굉장히 멀리하고 살았다. 항상 새로운 음악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다 보니 지나간 곡은 그 자체로서 보석처럼 남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어느새’를 재작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가 “음악의 색깔은 일렉트릭하고 하드한 느낌이 있지만, 제 목소리는 그 사이에 더 허스키해지고 나이도 느껴지게 됐다”고 하니, 인터뷰를 진행한 레이블 ‘최소우주’ 조동희 대표가 “목소리는 더 깊어지고 음악은 더 젊어졌다”고 보냈다.

과거 김민기와 장필순·한동준이 함께 노래한 ‘철망 앞에서’도 새 옷을 입었다. 이밖에 ‘보헤미안’이 두 버전으로 실리고 ‘햇빛’, ‘풍선’, ‘TV, 돼지, 별’,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흔들리는 대로’, ‘그대가 울고 웃고 사랑하는 사이’ 등을 편곡 버전으로 새로 만난다. 음악과 삶의 동반자 조동희가 작업에 함께했다.

장필순은 제작업 앨범에 담긴 곡들에 대해 “어떤 기준을 두고 추진 건 사실 없다”며 “매 순간 작업할 때 하고 싶은 곡들을 골랐다”고 전했다.



그는 “30년이 넘는 동안 사랑받은 곡들 외에도, 너무 좋은 노래들인데 저의 부족으로 알려지지 않은 곡들이 있다”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놓겠다고도 했다. 일단 이번이 첫 앨범으로, ‘리워크-2’ 발매도 계획한다. 이번 앨범은 5월 말께 LP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회상으로 조곤조곤 음악 이야기, 제주에서의 삶 얘기를 들려준 장필순은 “사실

굉장히 쑥스럽다”며 듣는 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기도 했다.

“고통을 가지고 음악을 창조해 내고 있는, 창작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소심한 사람이지만, 선배로서 제 자리에서 응원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게요.” /연합뉴스

문소리·이동휘·이연희 MBC 'SF8' 캐스팅

영화-드라마 크로스오버 8월부터 MBC TV 방송



문소리

MBC는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플랫폼 웨이브(wavve)와 함께 하는 영화-드라마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에스에프에이’(SF8)에 배우 문소리, 이동휘, 이연희, 이유영 등이 출연한다고 1일 밝혔다.

수필름이 제작을 맡은 ‘SF8’는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영화감독 8명(김의석, 노덕, 민규동, 안국진, 오기환, 이운정, 장철수, 한기람)이 각자 40분 안팎 러닝타임 SF영화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한국판 오리지널 SF 앤솔로지 시리즈를 표방한다.

김의석 감독의 ‘인간 증명’은 배우 문소리, 노덕 감독의 액션 스릴러 ‘만신’은 이동휘와 이연희가 캐스팅됐다.

민규동 감독의 ‘간호중’은 이유영과 이수정이 출연해 돌봄 노동을 대체한 로봇의 세계를 그려내고, 안국진 감독의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는 이다윗이 지구 종말을 앞둔 커플의 독특한 판타지 멜로를 선보인다. 김보라와 최성인이 출

연하는 이운정 감독의 ‘우주인 조안’은 미세먼지 재난 속에 펼쳐지는 귀여운 청춘극이다.

오기환 감독의 ‘증강 공각지대’에는 유이와 최시원이 출연하며, 가상현실이 보편화한 세상 속의 로맨틱 코미디를 선보인다. 장철수 감독의 공포 영화 ‘하얀 까마귀’에는 허나이가 캐스팅됐으며, 한기람 감독의 ‘블링크’에선 이시영이 강렬한 여성 액션을 소화한다.

‘SF8’은 오는 7월 웨이브에 감독판이 선 공개되며, 다음 달인 8월 MBC TV에서 4주간에 걸쳐 2편씩 오리지널 버전이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상민, KBS '악인전'서 20년 만에 음반 제작

1990년대 프로듀서로 활동한 방송인 이상민이 20년 만에 다시 음반 제작자로 나선다.



이상민

KBS 2TV는 뉴트로 음악 예능 ‘악(樂)인전’을 오는 25일 밤 11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박인석 PD가 연출을 맡은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음악인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각 분야에서 활약하지만 음악에 한이 있는 ‘음악 뚱둥이’들이 전설적인 음악인을 만나 신규 프로젝트를 실현해가는 과정을 담는다.

이상민은 이 프로그램 기획 프로듀서 자격으로 참여한다. 1990년대 플라, 삼,

디바, 샤크라, 컨츄리 꼬꼬 등을 연달아 성공시킨 그는 “올해가 넘어가면 영원히 못 할 것 같았다”는 각오를 전했다.

박 PD는 “시청자들의 심장을 뛰게 한 레전드 뮤지션들과 세대를 초월한 음악 뚱둥이들이 만나 뉴트로 컬래버레이션(협업)을 할 예정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20여년 만에 음악 부활자로 나선 이상민의 반전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55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10 좋은아침
10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40 지구촌 뉴스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르네상스의 거장들 55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재)	00 기본 좋은 날	00 SBS 뉴스 1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보보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00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더 플래닛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제21대 총선 토론회 <광주 동구남구 갑>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온드림스쿨 스페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교향악단 말러 스페셜 05 동행(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험대 3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한 번 다녀왔습니다(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20 생활의 발견 스페셜 30 도봇V 2 40 캐치! 티니핑	00 5 MBC 뉴스 30 차종우울 한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정글의 법칙(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브24 55 제보자들	55 그 남자의 기억법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	00 다크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00 어서와	05 시리즈M	00 맛남의 광장
11	30 KBS교향악단 말러 스페셜 3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5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100분 토론	40 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45 인간극장 스페셜(재)	4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한리필 셀러드(재)	30 나는 트로트 가수다	40 나이트라인

EBS1

07: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7:15 애코와 친구들 07:30 보로로와 노래해요 07:45 개구쟁이 스텝 08:00 당동댕 유치원 08:30 띠띠뽀 띠띠뽀 08:45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09:00 레인보우 루비 09:30 물랑 09:4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1~2부 12:00 EBS 정오뉴스 12:1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3부	13:50 특집 애니메이션 정박이 한반도의 공룡1 14:50 아기 동물 귀여워 15:0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1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15:25 애코와 친구들(재) 15:5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16:10 레인보우 루비(재) 16:25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재) 16:40 당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띠띠뽀 띠띠뽀(재) 17:35 물랑(재) 17:45 허풍선이 음악쇼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19:00 말괄량이 삤삤 19:30 최고대 초기스팍지 19:45 자이언트 팽TV 20:00 극한직업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지금 애니면 못 볼 지도, 스리랑카 라오스 -봄날의 보물찾기, 푸가오쿠아이> 21:30 한국기행 <소쿠리에 담아 봄 4부 청산도, 봄이 오나 봄> 21:50 다크 잇it 22:40 다문화 고부 열전 23:30 경이로운 지구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일(음 3월 10일 乙亥)

<p>36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48년생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인다. 60년생 부담스러운 의뢰를 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72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후유증을 남기게 충분하다. 84년생 판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96년생 조급씩 변하고 있다.</p> <p>행운의 숫자 : 11, 87</p>	<p>42년생 상호 관계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54년생 실행 해야 함에도 아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66년생 사소한 허점이 위험으로 비화 될 수도 있다. 78년생 유리한 쪽으로만 착각한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됨을 잊지 말라. 90년생 드나드는 것에 각별히 주의함이 안전하다. 02년생 회복세를 띠게 될 것이니 차분히 응대하라. 행운의 숫자 : 94, 88</p>
<p>37년생 불합리하니 속히 개선하고 불 일이다. 49년생 절제 않는다면 위험하다. 61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하리라. 73년생 기다리는 것은 안 오고 아무 상관없는 것만 보이리라. 85년생 비우면 채워질 것이요, 집착하면 사라질 것이다. 97년생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p> <p>행운의 숫자 : 02, 85</p>	<p>31년생 안심해도 된다. 43년생 시작했으면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 55년생 소중한 인연과의 만남을 경계하게 될 것이다. 67년생 장시간을 오히려 알뜰부터 서둘러야 늦지 않을 것이다. 79년생 큰 것은 놓치고 작은 것만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91년생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참나에 놓여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8, 98</p>
<p>38년생 문제점이 보이니 잘 찾아내야 한다. 50년생 상당히 줄어들었으니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62년생 떨어져 있어서 인연이 박하다. 74년생 지연되어 왔던 바가 급기가 처리되는 통쾌함이 있다. 86년생 비로소 실효성을 획득하게 된다. 98년생 원한다면 취할 가능성이 높다.</p> <p>행운의 숫자 : 84, 56</p>	<p>32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정진하면 기필코 이루어라. 44년생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로다. 56년생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임을 감안해야겠다. 68년생 잘 정리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80년생 신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92년생 전혀 다른 영역을 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 75</p>
<p>39년생 얻는 바가 많고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51년생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책을 찾게 되리라. 63년생 잘 표시해 두어야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75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새로운 면모를 얻을 수 있다. 87년생 자연스러워야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 99년생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원만한 관계가 형성 된다. 행운의 숫자 : 44, 59</p>	<p>33년생 배려가 깊이 감사하게 되리라. 45년생 천성으로 인해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57년생 본격적인 절치를 밟게 된다. 69년생 무리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81년생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취할 수도 없다. 93년생 불편하다면 버려라. 행운의 숫자 : 41, 99</p>
<p>40년생 주변에서 그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52년생 작용력의 여파를 간과한다면 불리해진다. 64년생 의외의 성과에 흠족해 하리라. 76년생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알자. 88년생 바짝 뒤쫓으면 가까스로 따라 잡을 수 있겠다. 00년생 서두를수록 남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7, 58</p>	<p>34년생 기회가 왔을 때 확실시 잡아라. 46년생 일신이 안락하니 세상일이 태평하다. 58년생 참신한 발상 속에서 새로운 시야가 트일 것이다. 70년생 무리하면 아니 되는 법이니 적당했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본다. 82년생 편지가 바탕이 되어야 위기감을 느끼게 되리라. 94년생 무능한 다수 보다 영향력 있는 하나가 백 번 나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3, 68</p>
<p>41년생 거주장스러운 것은 차치하고 편하게 임하라. 53년생 조만간에 곧 결정이 날 것임에 틀림없다. 65년생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으니 지금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77년생 돈이 들어오더라도 쓸 곳이 바로 생긴다. 89년생 꾸르는 들에는 이끼가 끼지 않느니라. 01년생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도 행운의 숫자 : 36, 54</p>	<p>35년생 조처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복잡다단하다. 47년생 별 허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59년생 유사하지만 전혀 다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71년생 객관적인 평가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83년생 시시각각 변화하는 판국이니 형세의 범위를 조절하라. 95년생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판세이니라. 행운의 숫자 : 05, 66</p>